

외고, 일반고교 모두 개편하자

교과부, '외고 체제개편을 위한 공청회' 열어

전체 고등학교 체제개편안도 함께 제시돼 오는 12월 10일 개편안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의 위탁을 받아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팀장 : 동국대 박부권 교수)은 11월 27일 동국대에서 열린 공청회('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외고 제도개선 시안을 제시하고 토론회를 가졌다.

외고가 존속을 선택하는 경우 설립목적에 더욱 확실히 하고, 과학고 수준의 학생 수, 학급 수 충족 등 지정 요건을 강화하며,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외고로 존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 주관으로 열렸으며, 연구책임자인 박부권 교수의 발제와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전문가가 토론을 벌였다(토론자 : 임해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진표 민주당 국회의원, 윤오영 당국고 교장, 한현수 이화여대 외고 교장, 조범래 울산교육청 장학관,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동훈찬 전 교조 정책실장, 윤숙자 '학부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교수).

발제를 맡은 박부권 교수는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외고 설립목적이 모호하고, 일반고교의 획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외고에 대한 수요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외고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선 시안을 제시했다. 먼저, 외고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외고의 지정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하되 외고로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형사립고 등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외고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안(1안)'과 '외고를 일반고교, 자율형사립고 등의 외국어중점학교로 전환시키는 방안(2안)'의 두 가지 시안이 제시됐다.

제1안, 외고 존속 또는 학교체제 전환 여부, 외고 자율로 결정

위 두 가지 안을 살펴보면 제1안은 외고에게 자율고 등으로의 전환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

신 이를 강제하지 않고 외고 스스로 존속 또는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제1안에 의하면 외고는 외고로 존속하거나,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 공립고(공립외고의 경우) 중 하나의 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2012년까지 전환할 수 있다.

특히 외고가 존속을 선택하는 경우 설립목적에 더욱 확실히 하고, 과학고 수준의 학생 수, 학급 수 충족 등 지정 요건을 강화하며,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외고로 존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자율고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학교 유형별 요건 충족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해야

자율고 또는 국제고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도 '법인전입금 부담 비율(자율고)', '국제계열 교육과정 전환(국제고)' 등 해당 학교유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환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고교로 전환해야 한다.

신입생 선발은 외고가 결정한 학교 유형의 선발방법에 따르되, 외고, 국제고, 자율고로 결정한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전형방법을 도입한다.

시안에 따르면 외고와 국제고는 신입생을 학교별로 선발하고 신입생 전형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자율고는 선발 지역에 따라 추첨배정 지역은 내신 50% 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하고 경쟁입시 지역은 학교별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또 자율형공립고는 후기 모집 보다 신입생을 우선 선발해 추첨 배정한다.



◆ 현행 고등학교 체제에 대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특경시외 관련 없음.

이 밖에 외고가 자율고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교과부는 전환 후 3년째 되는 해에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교육의 질적 수준 등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 유형의 계속 유지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후의 평가는 5년 주기로 실시한다.

제2안, 외고유형 폐지,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

제2안은 외고 유형 폐지 및 외국어 중점학교로의 전환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외고의 특목고 지위를 폐지하고 자율고, 자율형 공립고, 국제고, 일반고교 등으로의 전환

을 유도한다. 교육과정은 일반계 고등학교 과정을 기준으로 이 가운데 외국어 부분을 확대·심화해 별도로 외국어 특성화과정을 개설한다는 것이다.

신입생 선발은 '제1안'과 같이 전환한 고등학교 유형의 선발방법에 따르되, 일반고교로 전환한 경우 외국어 중점학교는 지원자 중에서 평준화지역은 우선 추첨·배정(비평준화 지역은 학교별 선발)하고, 탈락자는 일반 추첨배정으로 전환한다.

고등학교 체제개편, 전문계고 계열 '특성화고'로 단일화... '특목고' 축소, '자율고' 유형 신설

관련 외고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의 복잡한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고교 다양화 및 자율화 방향에 맞춰, 고교 체제를 일반고교,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정비한다.

먼저 전문계고, 전문계 특목고, 직업교육 특성화고를 '특성화고'로 단일화한다. 단, 2010년 개교하는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는 '특목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목고는 설립목적이 분명한 외고, 과학고, 예술·체육고, 국제고, 예술·체육고, 국제고만 존속시키고 자율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학교를 '자율고'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정리하면, △일반계고→현행 유지, △전문계고, 전문계 특목고, 특성화고→'특성화고'로 일원화, △현행 특목고 9개 계열(전문·농·공·수산·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특목고는 외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체육고 등 4개 계열만 존속, △자율고, 자율형공립고, 기숙형고, 일반 자율고→'자율고' 유형 신설·단일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 외고 체제개편안 중 제2안을 채택하는 경우는 '특목고' 유형에서 외고가 제외된다.

일반계고 개선 방안, 영·수 과목 10~15단계 재구성... '사교육 영향평가제' 도입 주장

이와 함께 연구진은 일반계고 개선 방안으로 '영어와 수학을 학문의 내적구조와 내용의 깊이에 따라 10에서 15단계별로 재구성할 것과 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가치 '고등학교 대학 과정(High School College)'의 설치를 제안했다.

입시제도 개선을 포함한 외고 제도개선안 등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른바 '사교육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육감 협의회, 각급 학교 교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과 공청회에서 논의된 시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오는 12월 10일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최상의 재료와 최선의 요리 질로서 고객님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분위기 · 맛 · 멋 · 가격 · 위생 · 대민족 - 주미정의 멋과 맛 서비스에 취해 보세요!

- 상건제, 가족모임, 각종단체모임 최적의 장소
- 250명의 넓은 공간 홀마다 형형색색 멋스러운
- 식후 비즈니스는 무료 커피숍에서 분위기 있게
- 80여명 동시수용 주차장은 언제나 여유만만



부천중원동중원동4가대안아파트사거리



주미정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98-3 | 예약문의 (032) 682-8838